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109

★ 재능교육 2020년 3관왕 수상 ★



12년 연속 수상
[스스로학습시스템]



8년 연속 수상
[재능스스로수학]



7년 연속 수상
[생각하는피자]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스스로 하면 재미있다.

쉽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재미있다.

자신감도 붙고 집중력도 생긴다.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스스로가 아이를 바꾼다.

미래를 바꾼다.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재능교육

JEI 재능교육

스스로학습으로 키워가는 미래, 재능방송·인천재능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재능그룹 회장 박성훈 (상66)



감사합니다

Anytime
Anywhere
I will take you!



M&M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

www.mmcorp.com



자율주행, 그 이상의 기술 Drive with Technology Mando

만도는 '안전'에 있어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우선으로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동차,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자동차,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첨단 편의기능을 갖춘 꿈의 자동차 기술을 생각합니다.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다



원격 전자동 주차 시스템(RSPAS)
스마트폰으로 주차를 간편하게



고속도로주행지원 시스템(HDA)
고속도로에서 편안한 드라이빙



교차로 사고 예방 시스템(CTA)
교차로에서 안전한 주행



주식회사 만도

436-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Tel : 02. 6244. 2114 Fax : 02. 6244. 2997 www.mando.com

한라그룹 회장 정몽원 (경영7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2020년 행사일정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행사명	장소
7월 초 18:00	야구부 후원금 전달	수당삼양 FACULTY HOUSE
9월 24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파크하얏트 코너스톤
10월 15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타이허
10월 17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미정
10월 30일 (금) 12시 경	골프대회(전교우)	여주 세라지오 C.C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수여식	L-P경영관
12월 3일(목) 18:20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F)

**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정이 변경, 취소, 연기되었음.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5_ 상임이사회
- 06_ interview – 김종양(81학번)
 - 김영식(75학번)
 - 형윤준(90학번)
- 14_ NEWS – 김영식(경영75)
 - 권익현(경영78)
- 16_ 회원기고 – 김진해(상학66)
 - 심재중(경영70)
 - 황인강(상학61)
- 21_ 학번별 소식
- 31_ 회원등정
- 32_ 교수컬럼 – 김동기 명예교수(상학54)
- 34_ 모교소식
- 43_ 경영대소식
- 44_ 회비납입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0 통권 제109호 Vol.31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정몽원
편집인 오성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136-7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가격 3,000원

경영대 교우회와 함께 꾸는 세계 최초, 최초의 꿈 우리가 교우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경영대 교우회와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World-class Knowledge Hub in Business



경영대 교우회와 함께 꾸는 세계 최초, 최고의 꿈
우리가 교우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2020년 상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장소: 타이허

2020년 4월 23일(목) 18:30 언주역 인근 TAIHE에서 「2020년 상반기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참석자와 오성호(경영79)사무국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성호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임이사회가 연기되었고, 이런 상황에 적정인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참석자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개최를 선언하였다.

이후 박수근(경영81)감사는 상임이사회 진행 전 한상일(경영90)감사가 실시한 2019년도 회계감사의 '적정'의견 제시됨을 공표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안)승인의 건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또한 김재욱(경영85) 경영대학장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대면수업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교우회와 함께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힘든 코로나사태를 잘 견디고 교우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요망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1개월 이남 상임이사회에는 26명의 경영대 교우회 임원이 참석하였다.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총재 김종양 (81학번) 교우



2020년 '자랑스런 고대인상' 수상

김종양(경영81) 교우는 창원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1학년 때 마을에 처음 들어온 전깃불을 보고, 새마을 운동을 경험하며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키웠다. 이 꿈이 그를 30년 동안 공직에 몸 담게 했다. 김 교우는 모교 졸업과 동시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6년부터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1991년에 특채시험으로 경찰에 투신해 주변인들을 놀라게 했다. 성공을 좇기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모교가 그리워 성북경찰서장 자청

“저는 경찰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것이고, 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김 교우는 25년간 경찰생활을 했다. 경찰본부 기획, 경비, 외사, 정보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고 세 번의 경찰서장, 두 번의 지방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는 등, 참모와 지휘관을 넘나들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경찰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김 교우는 재직 시에 모교에 대한 애정으로 성북경찰서장 근무를 했다. “경찰 재직시 서울 시내 서장을 딱 한 번 할 수 있는데, 저는 모교를 관할하는 성북경찰서장으로 자원했습니다. 제게 의미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터폴 집행위원·부총재 거쳐 총재에

성북경찰서장 임기를 마친 김 교우는 청와대 행정관, 미국LA총영사관 영사를 거쳤다. 그 후, 경찰청 외사국장직을 수행할 때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아시아 집행위원에 1위로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나섰다. “이때 맡은 업무들이 국제범죄 수사 와 국제 교류 · 협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인터폴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김 교수가 집행위원 임기를 마칠 때 마침 아시아 부총재 선거가 있었다.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친 김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엔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로 활동하게 됐다. 인터폴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총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부총재로 있던 김종양 교수가 총재 대행을 맡았다. 한 달 후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총재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국인이 인터폴 총재로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집행위원, 부총재를 거쳐 총재까지 역임한 건 김종양 교수가 인터폴 100여년 역사상 두 번째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두루 인정받은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기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저는 경찰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지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것이고, 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194개국 가입한 회원수 최대 국제기구

김종양 교수가 총재로 있는 인터폴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 간의 협력이 원활하도록 돕는 조직으로,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다. 여러 국제기구들 중 194개국이 참여,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한다(유엔은 193개국 참여). 보안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리·보관하고 다국적 프로젝트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국가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제공하기도 한다.

“인터폴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범죄자를 쫓아 현장수사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고, 적색수배를 내려 국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해외 도주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죠.”

모교의 자랑이 되도록 노력해온 삶

김 교수는 평생을 고대인으로 살았다. 모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경영대학 수업에서 특강을 하는 등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기도 했다.

김 교수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기구 대표로서 세계 번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작년 12월 경영대교우회에서 ‘올해의 교우상’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모교는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는 고대인답게 학교·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는 마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새기겠습니다.”

— 고대 교우회보 제598호

김종양 교수는...

한국인 최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이다. 제2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교통부 등에서 근무 후, 1991년 경찰에 특채 임용되었다. 미국LA총영사관 영사,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새로운 길로 뛰어드는
거침없는 도전,
우리는 고대 경영을
믿습니다**



자수성가 기업인 형운준 (90학번)

맨손으로 시작한 캔디수입유통,
2019년 연매출 500억으로 상승
자수성가 기업인 형운준(경영90)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형운준 교우는 2000년 식품전문 수입업체((주)일
산국제무역)를 설립한 일산국제무역은 2019년 연
간매출 일산국제무역 약 500억 원, 일신 트레이더
스 약 50억 원, 에스엠 트레이딩 약 120억 원, 엠
케이스페셜 약 400억 원, 전년도 25% 상승의 매
출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소개

일산국제무역은 제과류, 가공식품류를 수입/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처음 시작은 리콜라(Ricola)라는 캔디 수입
유통이었고, 지금은 20년 업력동안 축적된 유통 노하우
와 유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공식품 뿐 아닌 다양한 아
이템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원 매출에 직원은
30명이고, 대규모 물류창고를 6군데 보유 운영하고 있
습니다.

사업시작 배경

넉넉하지 않던 유년시절을 보낸 탓에 고생하시던 외할
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재학 시절
에는 당시 카이스트에 재학했던 둘째 형과 화상채팅 솔
루션을 만들어서 나이트클럽 매니저들을 상대로 영업
도 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스타트업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당시에 요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경리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리업무가 제 적성
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입사 2년 만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지금하고 있는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위기

경험도 없던 젊은 나이에 혼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순탄한 순간이 없을 정도로 매순간이 위기였습니다. 리
콜라 캔디를 수입했을 때 소매가가 2,000원이었는데
당시 롯데 목캔디가 200원이었어요. 가격경쟁력이 없
었죠. 그래서 고급제품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약국에
유통하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사업초기에는 한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주눅들기도 해서
대학동기들도 한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당시에 영업을
위해서 250만원 주고 아벨라를 구입했는데 혼자 식당
에서 밥 먹는 것이 불편해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사서
남산에서 창문 열고 차안에서 혼자 먹곤 했어요.

그런데 리콜라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주유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판촉을 했어요. 이때 좋은 직장 다니던 대학동
기들이 캔디 나눠주는 일 도와주고, 이상인 동문이 텔런
트로 한창 인기 모을 때였는데 분당 백화점에서 기타도

치면서 리콜라 판촉을 해줬어요. 참 고마운 동기들이죠. 그리고, 처음 20평 짜리 지하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창고가 물에 잠겼어요. 그때 리콜라 캔디 재고가 5천만원 정도가 다 젖어버렸죠.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잠기는 장면 그대로였어요. 젖은 캔디를 건져다가 울면서 드라이기로 말렸죠.

또 2004년에 젤리를 수입했었는데 그때 어린 아이가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젤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수입한 젤리를 큰 손해를 보고 처분해야 했었죠.

사업성장

리콜라 캔디유통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보쉬, 소낙스 등 차량관리 용품, 이탈리아의 돌핀사의 얼려먹는 아이스바폴라레티, 전통 깊은 대만 식품제조, 유통업체 인이미, 바슈룸 렌즈세척액, 농심의 건강식품인 라이필 더마 콜라겐 등으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급격히 성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유통업 특성상 20년간 꾸준히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첫 해였던 2000년 매출은 5억이었는데 2010년 매출 100억, 2016년 매출 300억, 2019년에 매출 500억을 달성했습니다. 처음 20평 지하창고가 지금은 6개의 대형 물류창고로 발전했습니다.

작년에 농심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라이필 더마 콜라겐의 온라인 유통을 비딩을 통해서 판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만 1년이 걸릴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라이필 매출목표는 올해 200억이고 내년이 500억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전체 매출규모를 2년내에 1,000억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영국의 Twinings와 국내유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winings는 1706년에 창업한 300년이 넘는 유명한 얼그레이(홍차의 일종)를 제조, 전세계에 판매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통계약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Twinings의 CEO인 Mr. Bob Tavener와 영국 런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일신국제무역의 그동안의 마케팅, 홍보 및 유통역량을 어필했고 유서 깊은 런던 스트랜드 216번가의 트와이닝티움에서 국내유통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일신국제무역의 또 다른 중요 아이템으로 Twinings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사업비전

사업 시작할 때 제 목표는 연 매출 200억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지난 2015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수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하창고에서 시작한 이 회사를 같이 일컫은 동료직원들을 위해 회사를 꾸준히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작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회사가 성장했는데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재영입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신국제무역은 경기도 오포에 본사가 있는데 올해 역삼동에 15층 규모의 사옥을 착공합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업무공간도 쾌적하고 멋있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Twinings 티하우스를 입점하고, 루프탑에는 품위 있는 사내 와인바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사옥의 일부 공간을 서울시의 청년아파트로 무주택 청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옥이 강남권 최초의 청년아파트라고 합니다.

조언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고 제 경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언은 어렵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 둘째는 끈기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을(乙)의 입장에 서게 될 뿐 아니라 제한된 인력에 허드렛일을 포함한 많은 업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명문대를 나왔다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도매상들과 경쟁을 해야 했고, 제가 직접 물건을 개인슈퍼, 약국에 납품하고 수금하고 했어요.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회사를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마주했지만 한번도 유통업을 그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어느 날 번듯한 물류창고도 하나 둘씩 생기고, 유통채널과 신뢰도 쌓였고요. 특히 유통업은 끈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22년간 한 팀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냥 아마추어 수준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시합에 나갔고요, 그 시합에서 결승전에서 골도 넣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집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사업 초기에 동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기회장인 최창규 학우를 도와서 교우의 밤 행사에 후원을 5년 전부터 시작했구요.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잠시 직장생활을 했을 때 저를 뽑아주셨던 인사과 부장님이자 후에 홈플러스 CEO를 역임하신 74학번 도성한 선배님이 많이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주 뵈고 모시는 고마운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유통 필드에 경험있는 후배들이 입사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학생들에게 홍보기획 같은 것을 공모해서 회사는 아이디어를 얻고 재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실전경험을 주는 기회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강남사육이 완공되면 루프탑 와인바를 교우모임을 위해 제공하고 싶습니다.

— 인터뷰 경영대교우회 심수현





새 공인회계사회장에 김 영 식 (경영75/부회장)교우 삼일회계 대표로 선출

"회계투명성 지수를 레벨업 시켜 전 세계에서 밀리지 않는 한국 회계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회계사 2만 2천 여 명을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새 수장으로 김영식(경영75)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선출됐다. 한공회는 6월 17일 오후 2시 30분 투표 마감 결과 김 대표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온라인 투표)로 실시된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64.8%를 기록했다. 회비 미납자 등을 제외한 유권자 1만7천920명 중 1만1천624명이 참여했다. 20~30대 젊은 회계사가 많은 만큼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유력 후보였던 김 대표의 당선으로 결론 났다.

김 대표는 이 중 4천638표(39.9%)를 획득했다.

채이배 전 의원이 유일한 40대 후보로 다크호스로 꿈꿨으나 2위(3천800표 · 32.7%)에 그쳤다. 김 대표는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40여 년간 업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이전 한공회장을 대형 회계법인 대표 출신들이 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한공회는 회계개혁의 안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기존 파이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파이 자체를 키워 회계업계 영역을 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기간 중 세 가지 화두로 제시한 (기업 등) 고객과의 상생, 회원 간 상생, 감독당국과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한공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 회계투명성 지수는 수 십 년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아 왔다"며 "회장으로서 회계투명성 수준을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김 대표, 채 전 의원 이외에 정민근 딜로이트안진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 연합뉴스



권익현 (경영78)교우 의학발전기금 3억 원 쾌척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지난 2월 13일(목)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본관 1층 총장실에서 권익현 교우(경영 78)로부터 의학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약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권익현 교우와 누나인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권희규 교수를 비롯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 정희진 의무기획처장, 김신곤 기금사업본부장, 편성범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의 발전과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권익현·권희규 교우 남매의 모교사랑은 남다르다. 권희규 교수 역시 이미 2018년 1억 원을 기부한 것을 포함해 총 1억 7천여만 원을 기부했으나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기부식을 생략했었다.

권익현 교우는 “지난 20여 년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진료

를 하며 모교에 감사함을 느껴 기부를 결심했다”면서, “누님이 계신 재활의학교실과 더불어 의과대학 전체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참석한 권희규 교수는 “학교를 다니고 모교 병원에서 일하면서 항상 고맙고 감사했다”면서 “오늘 동생이 모교를 위해 뜻있는 결정을 해줘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진택 총장은 “학교를 위해 소중한 뜻을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우님이 학교 사랑은 학생들과 많은 교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전해주신 기금은 재활의학과와 의과대학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모교를 위해 기부를 선택한 큰 결정을 주신 교우님께 감사드리며, 전해주시는 소중한 마음과 그 뜻을 받들어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더욱 자랑스러운 학교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어느 스무살 청년의.....

수필 : 김 진 하 (상학66.시인)



나뭇가지를 스쳐오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바람결이 귓바퀴를 간질인다.

야생화와 나무와 바위를 잘 어울려 가꾸어 놓은 뒷산 달마사로 걸음을 옮긴다. 달마사 뒷산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여의도 6.3빌딩도 저 잠실의 롯데빌딩도 다 바라보이며 앞에는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도 가까이 보인다. 한강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좌측계단으로 옮긴다. 주위에는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접시꽃 산딸기 개망초등 각종 꽃과 나무가 사이좋게 푸르름을 뽐내고 있다. 항시 보아도 이 달마사는 자연을 잘 가꾸는 사찰인것 같다.

나는 이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내려간다. 요즘은 방금 외웠던 나무이름도 까먹기가 다반사이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식물의 이름을 알고 대했을 때와 그냥 모르고 대했을 때의 느끼는 감흥에는 큰 차이가 있다.아마도 그것은 프로야구경기를 볼 때 야구선수 이름을 알고 보는것과 전혀 모르고 보는것과의 차이와 비슷할 것이다.

까먹은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겨우겨우 생각해 내어 다시 알았을 때의 기쁨도 아주 조그만 소박한 기쁨이다.

계단을 걸어내려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언덕 가운데 나무벤치가 두개 보인다. 좀 앉았다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벤치쪽으로 들어간다. 오른쪽 벤치에는 아주머니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나는 왼쪽 빈 벤치에 앉는다. 그런데 벤치 바로 앞에 청동으로 된 교탁같은 글자판이 눈에 띈다. 무심코 들여다 보니 한 청년의 사진과 그 청년에 대한 글이 새겨져 있다. 생몰이 2,000년-2020년으로 되어있고 글 말미에 5월로 되어있다. 며칠 되지 않았다. 큰 소나무옆에 세워져 있고 밑에 조그만 화환 두개가 놓여있으며 바로 앞 땅에는 가로 세로 각각 50CM정도에 하얀 조약돌들에 친구들의 기리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 나온지 20년만에 다시 이 세상을 하직한 인물도 훗날 한 스무살 청년의 수목장인것 같다.가슴이 뭉클하며 저 밑 어디에선가 어떤 울림이 밀려 오는것 같다. 나는 머리를 숙였다.

나는 가끔 여기를 올텐데 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이 알지 못하는 청년의 넋을 기리리라.

시련과 은총



심재중 (경영70)

(경영대교우회 (전)수석부회장 / 한국문인협회 상벌제도위 위원)

인간의 탐욕과 사악함
화를 키워
하늘과 땅에 가득 채운
(코로나) 병독

눈 앞에 펼쳐 놓은
가시밭 길
민초들
통곡과 흐느낌
이어지니

산천 초목이 떨어져
두려움
온 누리에
가득 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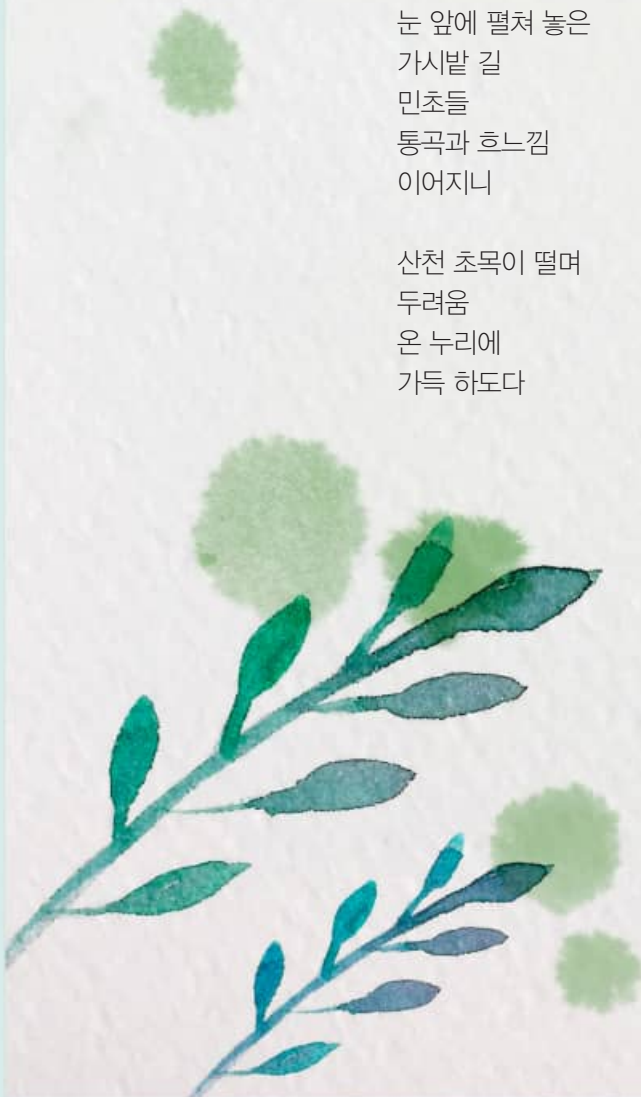
질게 드리운
두려움과 슬픔
헤아릴 수 없으니

소돔과 고모라
뒤 돌아 보는 미련
떨치게하는
은총의 시련일른가

다가올 여름의
숨 막히는
기나 긴 숨 죽임
또한
마음을 짓 누르나

창문 밖 청계산 자락
꽃 봉오리들 움 트며
여느 때 처럼
이른 봄 알리니

먹먹한 가슴
풀어내리려
푸른 하늘
바라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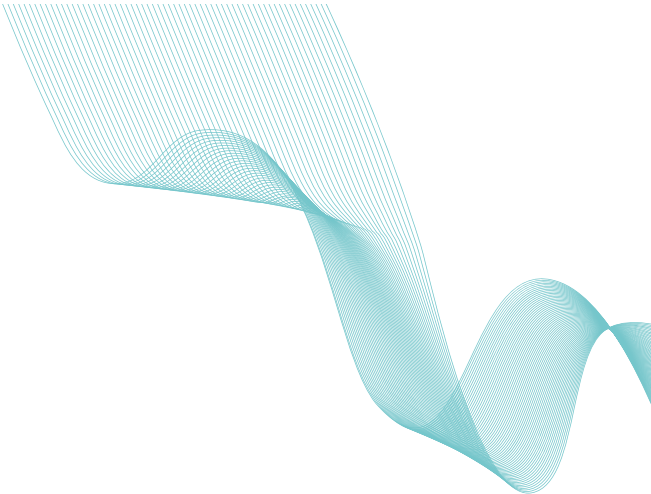
남 탓

소인배라는 말은 낯선 단어다. 아직도 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고사에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분명히 '제' 자인데 '저'로 읽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고사를 좋아하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오랜 폐단이 이어져왔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언행을 자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경멸감을 참을 수 없다. 이 악습을 많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아무렇지 않게 부끄러움 없이 사용한다. 잘못되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사죄해야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어떤 경우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주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개인은 물론 공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못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것은 상식이 아닐 듯싶다.

양심을 저버린 위정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일수록 부정과 거짓말 위선 등을 밥 먹듯 한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에게도 응분의 책임이 있고 일이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 나가는 행위야말로 개인이나 집단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리라. 작금의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 탓으로 전가하는 풍조가 팽창하고 그냥 넘어가면 글로벌 시민으로 환영받을 수 없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서투른 목수가 자기의 기술을 탓하지 않고 연장 탓만을 해서는 되겠는가.

환경과 여건만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눈앞의 장애물을 탓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돌에 걸려 넘어져 돌을 나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얼마 동안은 내 탓이 아니라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자기의 실수를 변명으로 호도할 수는 없지 않은가. 90년대 초,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향해서 '내 탓이요'라는 시민운동을 제창한 적이 있었다. 자기의 승용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며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내 책임이라고 자각하는 운동이었다. 당시 그 운동이 국민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던 기억이 새롭다.



황 인 강 (상학6)

성경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찌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울 수 가 있겠는가.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다. "군자는 잘못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배들은 남에게서 구한다."라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남 탓하는 사람들에게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소인배는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가리켰다. 어느 누구도 나는 소인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싶다.

모든 사람이 군자일 수는 없다. 공직자와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는 일하는 자세에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며 언행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은 물론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기관에서조차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리라. 코로나19 감염과 전염, 치료와 사망자 속출 등에서 정부와 여당이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모든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고 전가하려 한다. 우리는 극도의 불신과 혼란, 불안과 뻘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도 유분수다. 요즘의 사태를 바라보노라면 가슴에 멍이 드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은 대오각성 하여 올바른 국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무슨 일이든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이요' 라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어떨까.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다. '늘 웃으며 감사하고 성장하며 잘못에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하는 내가 되자'고 하는 명구이다. 자기의 허물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비아냥거림도 이제는 흘러 가버린 옛말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싶다. 어쩌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마련이다. “고운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사람 고운데 없다” 는 속담처럼 자신이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지레 의심하며 그 사람을 원망부터 한다. 나도 이런 범부의 한사람이라 생각하니 남을 꾸짖는 내가 민망하기만 하다.

조금이라도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지만, 정녕 부끄러운 이야기다.



고대인의 야성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하세요!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1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2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4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5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의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6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7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학번별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

56학번 ...

경영대 56학번 교우들, 코로나19를 굳세게 물리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56학번 파이팅!

61학번 ...

코비드19로 인한 이 힘든 시간을 하루 빨리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꼭 다시 만납시다. 61학번 화이팅!

62학번 ...

♡♡♡62학번 동기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코로나19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73학번 ...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73학번 동기 여러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74학번 ...

코로나19사태를 잘 이겨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우리 동기분들! 어서 빨리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해봅니다!

76학번(무역학과) ...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박멸하자! 무역76 파이팅!!

77학번 ...

코로나 물렸거라! 77화이팅!!

79학번 ...

코로나19 극복하여 고대의 저력과 한국의 대처능력을 세계에 알리며 Global Standard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79동기들이여 ~~~~ 모두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냅시다.

81학번 ...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다! 나가자 폭풍같이! 고대 경영80 파이팅!

83학번 ...

고대 경영 파이팅! 코로나19 물렸거라! 83학번 나가신다!!!!!!

84학번 ...

코로나 라는 초유의 사태로 어려운 시기지만, 팔사랑의 추억과 단결과 우정과 격려, 전인지 809명예회원, BTS, 현빈, 김지원, 오우 벤저스의 응원으로 팔사랑과 호상 구독자, 경영대학 교우 모두 위기를 극복할 것을 기원합니다.

90학번 ...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동행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대 경영 화이팅!!

92학번 ...

92학번의 의리 지금은 마음으로만.....stay safe!!

KUBS Ladies ...

코로나19 서로 응원하며 이겨냅시다! KUBS Ladies 여교우회 모두 건강히 지내다 만나요!



56 (회장 이연상 / 총무 변동수)

막수회 모임 ...

매년 정기총회가 있는 달을 제외하고 11개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월례 모임을 가졌던 막수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1월 모임을 가진 후 2월부터 4월까지 내리 3개월간 월례회를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5월 들어 코로나의 신규 확진 수가 줄어들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규제를 완화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동거나 가족과 또는 그들의 지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없고 또 오래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일부 동기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막수회 모임을 주선했으나 많은 동기들이 조금 더 참고 다음 달부터 나오겠다며 불참해서 겨우 4명의 동기만이 모여 아쉬움을 달래며 반주를 곁들인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다음 모임부터는 그리운 얼굴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6월 모임을 별 탈 없이 개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5월 동기회 전체 모임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홀수 달 둘째 화요일의 광암회, 짝수 달 둘째 월요일 만나는 이월회, 매월 넷째 목요일 산행하는 사목회, 2개월에 한 번 모임을 갖는 여학우회, 홀수 달 셋째 일요일 사찰순례를 다니는 불자모임, 매년 7월에 만나는 백두산 모임, 실버회의 월 1회 부정기 모임 등이 모두 취소되고 있다.

호비회 소식 ...

매월 4번째 월요일 기흥 코리아CC에서 라운딩하는 호비회에서는 동절기가 끝나는 4월에 시작했던 골프모임을 코로나19확산으로 쉬고, 사태가 안정된 5월 25일과 6월 22일 오랜만에 봄을 즐기며 호비회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모임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7월은 쉬고 8월 24일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6월 라운딩에는 정시균 회장 외에 김순구, 김홍곤, 남문희, 민병직, 박광근, 안희민, 원용계, 이복성, 이준웅, 이춘재, 이춘원, 정홍진, 최 섭 등 14명이 동참하였다.

초암회 소식 ...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만나는 '초암회'는 코로나19사태로 3월 모임은 취소하고 5월에는 사태가 안정되어 5월 19일 반포동 '산들해 한정식'에서 가졌으나 식당 실내 감염 우려로 초암회 회장 이복성 동기 외 10여 명만 참석하여 4개월 만에 모여 방곡의 답답함을 해소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하여 7월 모임은 쉬고 9월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도암회 소식 ...

매월 셋째 금요일에 만나는 '도암회'는 코로나19사태로 3월 모임은 쉬고 5월 15일, 6월 19일 여의도 리버타워 빌딩 2층 "봉평막국수 한우집"에서 만나고 있으나 취약 연령대인 동기들의 감염 우려로 참석률이 저조하였다. 도암회 회장 김 실 동기를 비롯한 김홍곤, 박광동, 박광근, 이준웅, 조방래, 채규학 등 7명의 동기들이 오랜만에 만나 불고기에 막걸리를 곁들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모임은 7월 17일 갖기로 하였다.

62 (회장 김효명 / 총무 한상욱)

2020 봄 행사 ...

-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오후5시
- 장소 : 청계산 옛골
- 뒤풀이 : 청계산장(한우등심)
- 참가인원 : 35명



코로나19관계로 모든 모임을 삼가했던 62학번 동기 및 가족들이 58년이 지난 지금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봄 행사에 참석했다. 10시 30분에 옛골에서 만나 한 팀은 이수봉으로, 한 팀은 약수터로 산행한 후 '청계산장'에서 상호 인사를 나누고 김호명 회장의 인사 말씀과 회장이 제공한 양주로 건배를 하며 공식행사인 만찬을 하면서 담소를 즐겼다. 동기들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64 (회장 김윤호 / 사무총장 박태웅 / 감사 안덕수)

백수회 4월 등산모임 ...

- 일시: 2020년 4월 29일(수)
- 참가인원: 10명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물소리가 맑고 크다고 해서 수성동이라 이름 지어진 골짜기를 백수회 10명이 지나면서 비온지가 오래되어 말라붙은 계곡을 이경희 대대장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다. 부암동 고샅길을 오르면서 오랜만에 참가한 유성준 동기는 해외 여행길,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언덕마을을 걷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길을 찾아왔다고 기뻐했고, 해박한 지식으로 카톡을 주름잡는 개근자 유명식 동기는 사적지에 대해 설명하느라 바빴고, 모처럼 10명의 성원에 기분이 좋다는 이용규 동기는 점심으로 만두와 자장면, 소주를 한 톱 썼는데 색소폰 달인 최양섭 동기가 한발 늦었다고 아쉬워했다. 기분 좋은 박명익 동기는 맛있는 동영상으로 카톡방을 꾸리겠다고 스냅사진을 편집하기 바빴고, 80년대 코스모스투어 유럽 여행 때 영사기를 휘둘러 찍었던 신준철 동기는 인화사진을 핸드폰 앨범에 옮겨서 지금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40년 전 젊은 날의 얼굴을 보여줬다. 백사 이항복 별장이 있었다고 명명된 지금은 물이 없는 흰 물줄기(白沙)계곡 골짜기 옆 돌 탁자에서 가사도 잊지 않고 부르는 유성준 동기의 “보라빛 업서”라는 노래는 곡차를 마시며 듣는 야외 음악당 동창으로 더욱 즐거운 뒤풀이가 되었고, 식물도감인 연안씨 철통인바 다정다감한 마음씨로 동기들을 배려하는 이석훈 동기는 꽃이며 풀, 나무를 족석에서 설명하였고, 언제나 만형 김현희 동기는 다음 산행 길로 금선사 풍경 감상을 추천하면서 노익장으로 건재하였다. 오월 마지막 주 백수회는 초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늦은 봄 하루를 서울 근교의 멋진 계곡과 산자락에서 보냈다. 싱그러운 풀잎, 나뭇잎 사이에 피어나는 꽃들 사이로 하하 허허 웃음소리 내면서 코로나를 이겨내자고 걷는 기쁨이여, 우린 항상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5월 골프모임 ...

- 일시: 2020년 5월 18일(월) 12:36
- 오늘의 우승: 박채길, 허석도
- 해님 1조: 김동훈, 박채길, 이강훈
- 해님 2조: 김덕명, 김순배, 성기남, 조재복
- 별님 1조: 김춘식, 이석훈, 안상철, 허석도

코로나가 여전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고대경영골프회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모임 전전일 우리가 운동하기로 예약되어있는 시간대에 적잖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모처럼의 즐거운 우리들 행사를 망치지 않을까 하여 모두가 노심초사했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모임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비 예보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어 다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골프장에 도착했다. 코로나에 갇혀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5월의 푸른 신록 속에서 시원하게 불어주는 상쾌한 바람을 더없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 즐거운 라운드를 시작했다. 이번 모임에는 박채길, 성기남, 이석훈 동기가 처음 나왔는데 특히 성기남 동기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병고를 털어내고 약 1년 만에 골프를 다시 시작하여 변함없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오늘 한 가지 흠으로는 좋은 계절을 맞아 다른 골퍼들도 총출동하여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 2개조가 강우로 마지막 홀을 못 마치고 마무리한 것이 아쉬웠다. 운동을 끝내고 간단히 샤워한 후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코로나 메뉴인 개인 식단으로 석식과 환담을 즐기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까운 하루를 만끽했다.



백수회 5월 등산모임 ...

- 일시: 2020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
- 참가인원: 11명

오월의 안산 자락은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봉은사 종소리가 울릴 때면 짙레 꽃 또한 짙은 향기를 내뿜으며 앵앵거리는 꿀벌들을 모이게 하고 있었다. 경영64 등산회는 월 1회 뿐이어서 수시로 번개모임을 갖는 지동직, 박명익, 유명식, 이경희, 이용규, 천창호 동기 등이 산행을 정례화 하여 매주 수요일 모이기로 했다. 대부분 백수들이 된 동기들이 백년까지 건강하게 등산 하자고 백수회라 칭하고 2017년 5월에 시작한 모임을 3년간 지속하면서 서울둘레길을 섭렵하고 수시로 근교 산책길을 가고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달째 연기하다가 다시 우면산을 찾았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들 선들 불어 연초록 나뭇잎이 터널을 만들어 준 산길은 엇그제 내린 빗물이 먼지를 씻어가 기분 좋은 상큼한 흙길과 대마 재료를 깔판을 만든 고급 둘레길에 햇빛이 스며들어 나뭇잎 사이로 하얀 천 조각처럼 발 앞에 흔들렸다. 홀로 산행 해왔다는 이용규 동기는 저 멀리 앞서 나가 견각(堅脚)을 뽐냈다. 우리는 정자에서 쉬면서 이경희 대대장이 준비해온 새참을 나누고 막걸리로 목을 축여가며 어린애처럼 깔깔거리고 어디에서 이런 격의 없는 만남과 대화를 누릴 수 있겠냐며 자족했다. 산행이 끝나고 미리 기다리는 지동직 대장은 신수가 허여멀결게 좋아진 대가(?)로 맛있다고 소문난 갈비탕, 육개장, 냉면을 혼자 부담하며 큰 턱을 내준 덕에 더욱 값진 점심은 맛까지 좋았다.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라고 주석하고 향후 Korea가 AC를 주도한다는 유명식 동기는 세종대왕이 안 나오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역병을 이겨내자고 다짐하였고 백수회를 포함 경영64 동기들은 영원한 고대생이란 자부심과 자량으로 복 받은 행운아들이라고 하는 박명익 동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백두산 등정 회고 ...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가지 못한 산행대신 테마여행 및 등산, 총 33회 중 가장 많은 인원 참석은 92명이었고 가장 적은 11명이 참가한 백두산 등반을 소개한다. 2009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백두산 천지를 등정했다. 이용규 회장의 추진으로 속초항을 출발 러시아 자루비노 항구를 거쳐 연변, 훈춘, 도문, 일송정과 윤동주 생가 및 대성중학교(現웅정중학교)를 방문하고 북벽을 통해 천지에 오르는 일정은 장백폭포를 지나 오르는 코스 가 낙석 피해를 염려한 중국 당국의 등산로 폐쇄로, 일정과 코스에도 없었던 측면 산에서 용문봉-달문-천문봉-천지에 이르는 길은 무식해서 용감해진 11명 특히 여성 세 분의 용기로 오로지 등정만이 일행과 함께하는 길이라서 기어가다가 견고, 내려올 때는 등으로 썰매 타는 형편으로 작은 용문봉, 천문봉을 지나 장대한 천지에 도착했다. 손을 씻고 세수하면서 보낸 꿈같은 일정, 특히 이용규, 고병선, 성기남 세 동기는 500M 넘는 천지 안쪽 돌무더기와 자갈이 깔린 급경사를 이룬 암벽을 올라 중국군 기상대원 숙소까지 오르는 용맹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김옥희, 김윤호 등 8인은 장백폭포 옆길을 걸어 내려갔다가 다시 지프차를 타고 산 정상에서 조우하여 하룻밤을 보내는데 5M 앞을 볼 수 없이 비바람이 치는 번덕스런 날씨 속에서 천지에서 잡았다는 산천어 회와 매운탕을 들쭉술과 함께 만찬을 하며 보낸 기막힌 백두산 꼭대기에서 밤을 보냈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해외원정 등산을 동춘 관광 감사인 신준철 동기 덕으로 1등실에서 지낸 세 쌍(김동훈-이하자, 박채길-김원경, 정세홍-양인희 부부)은 꿈같은 선상 호텔의 밤을 왕복으로 호사를 누리 귀국하는 날 점심을 사면서 다른 동기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69

(회장 이재선 / 총무 조현룡)

현승종 은사님 조문 ...

- 2020년 5월 25일 별세, 27일 대전국립현충원 안장
-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가족장 치루고 외부 문상 안 받기로 하였으나 조현룡, 김영호 동기 등은 빈소에 가서 조문하였고 운구 행렬에 참여
- 카페 내 많은 동기들 조문 메시지 올림



월례산행 ...

- COVID19 극복을 위해 산행 강화
- 2020년 4월 6일(월) 산본 수리산 산행, 이학에서 뒤풀이
- 2020년 4월 20일(월) 청계산 매봉 산행, 목우촌에서 뒤풀이
- 2020년 5월 4일(월) 대공원 둘레길 걷기, 야외식당에서 식사
- 2020년 5월 18일(월) 청계산 산행, 목우촌에서 뒤풀이
- 2020년 6월 1일(월) 산본 수리산 산행, 이학에서 뒤풀이
- 2020년 6월 13일(토) 번개탕 소요산 산행
- 2020년 6월 15일(월) 청계산 산행, 목우촌에서 뒤풀이



조익순 교수님을 추모하며 ...

밤새 비가 내리더니 새벽부터 맑아졌다. 지난 일년내내 교수님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전화 주셨을 때처럼 기다리는 마음과 즐거웠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안동까지 섹 소폰 들고 함께 공연 떠날 때도 교수님께서 그 먼 길을 새벽에 출발해서 자정에 서울 도착했어도 지치지 않으시고 함께 간 동기들에게 집에서 준비해오신 와인을 공연성공 축하주로 버스 안에서 나누셨던 기억이 있다. 홀연히 그렇게 떠나실 줄 알았다면 하 고픈 이야기를 더 하고 교수님 모시고 함께 계획했던 여행을 떠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조익순 교수님 기일 1주기가 되었다. 교수님 생전에 함께 모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을 반겨주셨던 교수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고 맵습니다. 사랑합니다.



70 (회장 한부연 / 총무 정균화)

70삼목회 모임 ...

코로나로 두 달 쉬었던 70삼목회 모임을 5월 21일 교대역 부근 '토담'에서 가졌다. 10명의 동기가 모여 코로나 시국에서 서로의 근황을 교환하고 식사 후에는 칠당회 당구모임장으로 전원이 자리를 옮겼다. 넓은 당구장을 전세 내다시피 차지하여 그간 유튜브 보며 단련한 솜씨를 겨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4 (경영회장 조철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5월 남산 모임 ...

- 일시 : 2020년 5월 9일 (토)

남산클럽모임을 거의 1년 만에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새롭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한극장에서 만나 남산을 한 바퀴 돌고 냉면집 '평래옥'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한 한호석 명예회장이 남산클럽회장을 맡아 주기로 했으며 조철래 동기회장의 재가를 얻어 최종 선출되었다.



경영74 6월 남산 모임 ...

● 일시 : 2020년 6월 6일 (토)

현충일날 경영74 남산클럽 멤버들이 조용히 남산을 향했다. 남산클럽회장인 한호석 동기는 지방에 내려갔고 74동기회장인 조철래 동기 등 여러 동기들이 참석하여 좀 더운 날씨지만 남산의 소나무와 여러가지 꽃들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물론 식당으로 바로 온 동기들도 여러 명 있었다. 이제 7월 4일(토)에는 경영74 정기모임이 아차산에서 있을 예정이어서 구자형 사무총장은 많은 참석을 부탁하였고 이번 6월 20일(토) 이들을 결혼시키는 천두식 동기의 인사말씀과 함께 특별히 식사도 협찬해주어 즐거이 막걸리와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당구장으로 향하였고 나머지 동기들은 마지막까지 닭고기를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76 (무역회장 전윤성)

무역76 정기모임 ...

● 일시 : 2020년 5월 23일 (토)

2020년 새해 모임을 갖기로 약속을 해두었으나 몸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껏 정식 모임을 갖지 못하고 지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동기 강신도의 딸 결혼이 있어서 바이라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기들이 참석해서 결혼 축하와 더불어 동기들과의 두터운 우정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6월 중 시간이 되는 동기들과 남산둘레길 걷기를 하면서 건강유지와 친목도모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다. 얼른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동기들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 언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79 (회장 서학석 / 총무 오성호)

3월 산악회모임 ...

- 일시 : 2020년 3월 28일(토)
- 장소 : 강원도 영월의 태화산

이번 산행은 북벽에서 출발하여 정상찍고 고씨동굴로 하산하는 코스다. 약 13km의 산길을 걸어 5시간의 사투 끝에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7시간만에 완주하였다. 충북의 단양과 강원도의 영월을 걸쳐있는 해발100m에서 출발하여 1,027m정상을 찍고 급히 하향했는데 순한 산일 줄 알고 대들었다가 고생하였다. 그래도 모두 무사한 산행이었고 뒤풀이로 먹은 쏘가리 매운탕은 별미였다. 14명이 모였지만 산행은 12명이 완주하였다.



2020신년회 및 2019결산회의 ...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18:30
- 장소 : 타이허

올해 첫 정기모임을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미루다가 이제서야 가지게 되었다.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나마 최근 들어 확진자 증가속도가 많이 줄어들었기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마음으로 모임을 하게 된 것이다. 서학석 동기는 회장에 서두에



서 "총선에서 당선된 동기, 동기가족들에게...축하한다. 건강하게 만나자. 회갑여행 등은 계획대로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방용원 감사의 2019년도 동기회 회계감사결과보고를 통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성호 사무총장의 결산보고 있었다. 지난 2019년도는 40주년 모교방문축제와 회갑여행이라는 큰 행사를 맞아 1억 3,700만원과 1,780만원의 큰 지출이 있었다. 여러 동기들의 큰 찬조 덕에 큰 행사들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행사에 참석해 준 열성적인 동기들이 있었기에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었다. 기타 골프회·산악회·당구회·축구회 등의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소모임 찬조에도 아낌없는 손을 내밀어준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분위기 향상에 기여한 노철, 김정태, 이송재, 이상현, 허만길, 김정관, 한병로, 장덕윤, 김명국, 서학석, 오성호 동기 등 11명에게는 10만원의 상품권이 수여되었다. 골프회 집행부로 2년간 수고해준 한병로, 김정관 동기에게는 서동린 골프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추경호, 동생을 당선시킨 박수완 동기에 대한 축하박수와 코로나19로 미루어진 딸의 결혼식을 5/9에 올리게 된 송상호, 아들 결혼식을 6월에 올리게 된 이성훈 동기가 나와서 인사를 하였다. 소그룹의 회장(축구회-이상현, 골프회-서동린, 산악회-장덕윤, 당구회-김명국)이 나와서 소개 및 사업계획을 알렸다. 이날 나온 총 비용 중에서 120만원은 동기회 결제로, 초과하는 나머지는 장치평 타이퍼 주인공의 찬조로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린다. 세안용 크림을 선사해준 서유창 동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4월 산악회모임 ...

- 일시 : 2020년 4월 25일(토)
- 장소 : 강원도 홍천의 공작산

지난달 태화산의 여운으로 일부러 짧은 코스로 유도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공작새가 깃지를 펼친듯한 모습의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금 부족한 듯한 운동이라서 인지 자신감이 있는 산행과 족탁으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약 6km의 거리에 산행시간은 세시간 반쯤 걸렸다. 14명 완주



79경영 정기골프모임 ...

- 일시 : 2020년 4월 26일(일) 12:30
- 장소 : 일동레이크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일상이 긴장상태인 이즈음에 연례행사로 짜여진 동기들의 정기골프를 마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역시 포천일동에 자리 잡은 일동레이크에서 백구의 향연을 가졌다. 누런 잔디 아래에서 올라오는 새싹들의 기운과 공장가동이 줄어 중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진 아름다운 봄 하늘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거움을 더했다.



5월 산악회모임 ...

- 일시 : 2020년 5월 30일(토)
- 장소 : 경북 문경의 주흘산

아침 7시에 만나 국밥 한 그릇하고 20인승 소형버스로 14명이 출발하였다. 주흘산 코스는 옛날에 선비가 과거 길에 올랐다는 영남 제1관문 문경새재를 사이에 두고 주흘과 조령산이 마주하고 있는 험한 길이다. 소백산맥의 주산으로서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이 요새를 방어진으로 왜구를 막았더라면 역사가 새로 쓰여졌을 것이다. 주차장-제1관문(주흘관)-해국사-여궁폭포-주봉-영봉-꽃밭서들-제2관문(조곡관)-용추주막-주흘관 원점으로 약 16Km를 무사히 완주하였다.



6월 당구모임

- 일시 : 2020년 6월 20일(토) 11:00~19:00
- 장소 : 교대 앞 벙커61.5클럽

오늘 상반기 결산 당구대회가 있었다. 국제식 대대에서 하는 3쿠션경기로 각자의 핸디를 놓고 하는 경기라 부담 없이 갈고닦은 기량으로 시합에 임하였다. 12명의 선수들이 참여, 4개 그룹에서 리그전으로 겨루어 승자 2명을 진출하도록 하여 토너먼트식으로 준결, 결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우승자는 79당구회장 김명국 동기. 내내 준우승만 몇 번 하더니 기어이 우승하였다. 준우승에는 양상문 동기, 공동3위에는 이성훈, 임진규 동기가 차지하였다. 상품으로는 우승에 한우 1.2Kg, 준우승에 0.8Kg, 3위에게는 0.5Kg가 주어지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땅콩볼'이라는 안마용구가 지급되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여준 김명국 회장과 장덕윤 사무총장에게 감사드린다.



80 (회장 신창윤 / 총무 이봉기)

경영80

코로나19로 전체 동기와 행사는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답답함 속에서 2020전반기기를 보냈다. 다만 운동모임을 중심으로 동기들 활동은 조심스럽게 꾸준히 이어졌다.

골프회 모임

- 2020년 4월 7일(화)과 6월 2일(화) 청평 마이다스밸리CC에서 각각 20명의 동기들이 참가하여 골프 월례회를 갖고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 또한 5월 4일(월)에는 청평 마이다스밸리CC에서 동기 부부골프모임을 가졌는데 20명이 참가하여 화창한 봄날에 우정과 애정의 깊이를 더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호산회

호산회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3월을 제외하고 매월 정기산행을 하면서 동기들 간의 건강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4월 11일(토)은 북한산 둘레길, 5월 23(토) 아차산, 6월 13일(토) 청계산을 산행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산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81 (회장 김현수 / 사무총장 신동훈)

고글회 4월 골프모임

- 일시 : 2020년 4월 15일(수)
- 장소 : 자유CC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자유CC에서 6팀 24명이 참가하여 골프 라운딩을 하였다. 협찬은 고글회 회장 송재현 동기가 골프공 24박스, 박수근 동기가 화장품 25세트, 김현수 동기 회장이 3단 접이우산 24개를 기증하여 골프모임 참가한 모든 동기들이 풍성한 선물을 안고 귀가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원칙에 의거하여 식사도 조별로 따로 하고 저녁식사 후 바로 귀가하였고 시상행사도 생략하였다.



경영84 팔사랑 : 5월 등산모임 ...

- 일시 : 2020년 5월 16일 (토)
- 장소 : 북한산

참가자가 6명으로 평소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이태원 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증가 추세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인원이 오는 것도 부담이라 가볍게 산행을 했다.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아마도 구름이 산에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았다. 우리는 뜬구름 속을 걸었다. 봉우리에서 시원하게 보이는 전경을 볼 수는 없었으나 돌레가 흰색 안개인 풍경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김홍석 대장은 코스를 절묘하게 설계했다. 국민대 정문에서 출발하여 형제봉, 大城門, 大南門, 문수봉을 거쳐 구기동으로 내려오는 코스였다. 한 달에 토·일요일 8일 중에 7일은 등산을 하는 김준범 동기를 비롯하여 등산을 자주 하는 이정근, 김영배, 나성철 동기에게는 적절한 코스였고 1년 만에 산에 오르는 이순규 동기에게는 퍼지기 직전에서 끝나는 챌린지하고 적당한 코스였다. 등산의 묘미는 내려와서 마시는 막걸리일 것이다. 다들 산에 오르면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내려와서 먹는 칼로리가 더 많고 배가 들 어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막걸리를 6통이나 비웠다. 허심탄회한 대화도 좋았다.



연대별 소식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14기 신입 부원들과 함께한 <KUBS Women: Blossomed> ...

2020년 KUBS Ladies는 14기 신입 리쿠르팅을 통해 총 11명의 집행부원들과 함께했다.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하게 오프라인 활동에 난항을 겪어 온라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4월에는 경영대학 졸업생인 열 한분의 멘토들과 29명의 재학생 멘티들의 굿이브닝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차 팀별미션-멘토님과의 맛집 탐방'으로 각 팀별 만남의 자리를 가져 멘토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8월 중 적절한 시일에 중간행사로 멘토링의 모든 참가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KUBS Women: Blossomed> 인터뷰 프로그램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신 분은 이지은(경영여)교우님이다. 온라인 인터뷰임에도 생생한 열정으로 학우들에게 벤처사업/마케팅 분야에 대한 소개와 이지은 교우님과 김선경 교우님(경영14)이 함께 만들어 가는 중인 지속가능한 소비 지향의 스타트업 '모레상점'과의 제휴를 통해 경영대학 학우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의 가치를 전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쿨레X모레상점-오늘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를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SNS 이벤트에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친환경 삼행시'를 짓고, 추천을 통해 모레상점의 '지속가능한 책임소비'를 지향하는 제품을 나누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며 KUBS Ladies 재학생 집행부는 하반기 행사에 관해 논의 중이다.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집행부 간담회 ...

- 일시 : 2020년 6월 22일(월) 저녁7시
- 장소 : 청계산 흑염소
- 참석자 : 90,909대표 최창규, 93윤희도, 96김민엽, 안성수, 97김 언, 유진, 99김영태, 이동영(총 8명)

코로나로 모임을 잘 갖지 못했었는데,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몸보신하자고 번개 식사 모임을 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909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한 집행부를 새롭게 꾸렸다. 윤희도(93) 교우가 909부회장을 맡기로 했고, 김민엽(96)교우가 총무, 안성수(96)교우가 골프총무, 김 언(97)교우가 행사진행 총무, 김영태(99)교우가 연락총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회보의 주인공입니다. It's About You.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회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우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회 모임이나 행사 중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행사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교우님을 알리고 싶을 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Contact Us

회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TEL 02.922.3762 E-mail kubs@kubs.or.kr

회원동정



김영식(경영75)

2020년 6월 17일 김영식 교우가 한국공인회계사회 45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최창원(경영82)

2020년 5월 9일 최창원 교우가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선임되었다.



김광옥(무역86)

2020년 3월 30일 김광옥 교우가 카카오뱅크 부대표에 선임되었다.



전달영(경영77)

2020년 6월 7일 전달영 교우가 충북대학교 대학원장에 임명되었다.



김남구(경영83)

2020년 3월 20일 김남구 교우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정의선(경영89)

2020년 3월 19일 정의선 교우가 현대자동차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추경호(경영79)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대구달성군 추경호 교우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김진우(경영83)

2020년 4월 8일 김진우 교우가 신영증권 기업금융 본부 전무에 선임되었다.



최재화(경영04)

2020년 4월 22일 최재화 교우가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에 선임되었다.



이현승(경영81)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부산진구를 이현승 교우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양승열(경영83)

2020년 6월 24일 양승열 교우가 삼정회계법인 대표로 승진하였다.



강신국(경영82)

2020년 2월 11일 강신국 교우가 우리은행 IB그룹 상무로 승진하였다.



강을준(경영85)

2020년 4월 28일 강을준 교우가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감독에 선임되었다.

교수동정



문형구

2020년 5월 12일 모교 경영대학 문형구 교수가 청와대 반부패협력대사에 임명되었다.



배종석(경영82)

2020년 4월 29일 모교 경영대학 배종석 교수가 인사조직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인사조직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인사조직학회 제30대 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베네수엘라의 自殺”이 주는 敎訓

김 동 기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고려대 명예교수(2018~현재),
전 고려대 석좌교수(2008~2018)



한때 베네수엘라는 중남미국가 중에서 가장 오랜 민주화의 역사를 가진 가장 강력한 민주국가의 하나였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집행해 나갔던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의 통치로 최빈국으로 전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외교 관계 전문 계간지(quarterly)인 “Foreign Affairs” 2018년 11~12월호에 실린 “베네수엘라의 自殺”이라는 글에서 “베네수엘라는 마약 밀매의 핵심 국가로 그 지도자는 모두 베네수엘라의 권력층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물가는 25일마다 2배씩 상승하고 있고 외국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매월 수 만 명에 달하고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국민이 수 만 명에 이르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에는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히랍, 이스라엘보다도 더 높은 1인당 GDP를 가졌었지만 2001년 토지개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되던 대규모 농장을 농

민협동조합으로 넘겨 경영하도록 했으나 원시적인 농업생산 기술, 관리기술의 저수준, 자본시장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농지개혁은 마침내 실패로 끝났다.

설상가상으로 차베스는 외국인 소유의 석유 기업을 정당한 금전적 보상 없이 몰수하여 정치적으로 가깝지만 석유회사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토착 정치인을 최고경영자로 임명하여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

차베스는 전기·수도뿐만 아니라 주요 정보통신산업까지 국유화하여 만성적인 수자원 및 전력 부족을 초래했었다.

차베스는 그 뒤 알루미늄, 철광석 회사, 호텔, 항공사 등을 차례로 국유화하여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영자들이 적자경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장기저리의 차관을 들어오게 하여 베네수엘라 기업들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하여 적자경영을 확대해 나갔다.

2002년과 2003년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에 종사하던 대다수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차베스의 국내 석유

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국영석유회사에서 근무하는 50%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파면하거나 감옥에 가두었다.

시리아의 內戰으로 시리아의 1인당 GDP가 40% 감소했듯이 베네수엘라 인구의 61%가 극빈 상태에서 동물적인 생존을 위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외산들은 보도하고 있다.

결국 차베스와 마두로의 사회주의 정책이 한때 중남미의 모범 경제 선진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정책으로 최빈국 상태로 전락시켰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무상 몰수하여 국유화해버린다. 그 결과 모든 국민은 재산을 정부에 강제로 빼앗겨 마침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 빼앗겨 정부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나 개개인의 물질적 풍요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하이엑크(Friedrich Hayek)는 그의名著 “노예로 가는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사회주의는 국민을 정부의 노예로 만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만약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①사유재산의 무상몰수 ②모든 민간대기업의 국유화 ③기업경영 경험이 없는 직업적 정치가의 국유화된 기업의 경영자 취임 등으로 개인에 의한 기업활동은 전면금지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나 경제적 번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칼 맑스, 레닌, 엥겔스 등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하고 자본주의 이후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고 예언했는데 현실은 공산주의 국가가 먼저 망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제일 먼저 망했고 기타 공산국가들도 북한과 쿠바만 제외하고 다시 자본주의 국가로 바뀐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만이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고 있다.





2020년 5월 대학교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고려대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대학교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실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한달간 브랜드 빅데이터 99,118,406개를 분석한 결과로, 2위는 서울대 3위는 연세대 순이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대학교 브랜드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한국브랜드모니터 소비자위원이 진행한 채널평가도 포함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브랜드에 대한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미디어에서의 대화량 등을 측정할 수 있다.

1위를 차지한 고려대 브랜드는 참여지수 867,426 미디어지수 520,576 소통지수 2,228,542 커뮤니티지수 330,4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47,023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한다. 이번 분석은 국내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KU마음건강연구소, 한국형 정신건강 자가검진 시스템 개발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자가검진 시스템 개발돼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 한국형 우울불안 평가도구 선보여
한국심리학회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약맺고 무료 제공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우울/불안/자살위험성 및 활력 평가를 이용하여 국민들 스스로 정신건강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검진 시스템을 개발했다.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장 최기홍 교수(심리학과) 연구팀은 일산백병원 이승환 교수 연구팀, 한양사이버대 최윤영 교수 연구팀, 세종대 이종원 교수 연구팀과 다학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우울 및 불안, 자살 위험도 선별 도구를 개발하고,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활력 지수를 개발하여 정신건강을 총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자가검진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외국 도구를 번안해서 쓰다 보니 로열티 문제를 비롯해 한국 문화나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인의 정신건강 점검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례 없던 COVID-19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도구의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번 개발의 의미는 학술적으로나 사회 공헌적으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는 한국심리학회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R&D사업단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5월 18

일부터 자가 검진 서비스(우울불안평가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 중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www.koreanpsychology.or.kr),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R&D사업단 홈페이지(<http://www.mhrnd.re.kr>),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 홈페이지(www.kumind.or.kr)에 접속하여 간단히 검진하고 즉석에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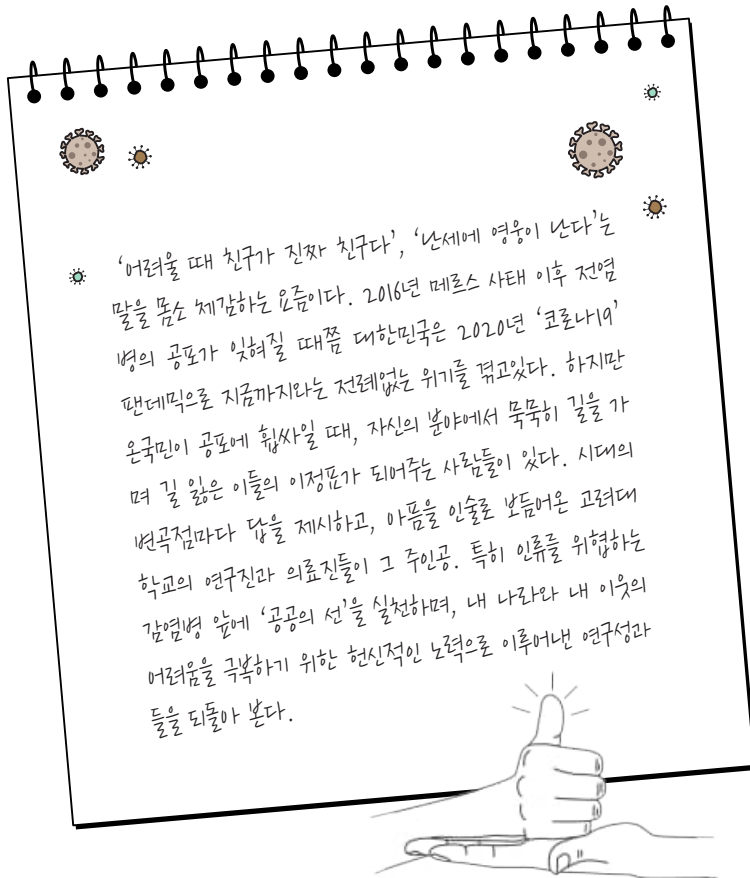
자가-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등)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심리방역 차원에서 한국심리학회에서는 무료로 비대면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최기홍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장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에 이어 향후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는 남녀노소 각각의 패턴에 맞게끔 확대,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외에 타국에도 국가별 맞춤 정신건강 자가 검진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탄바이러스에서 메르스, 코로나까지

- 공감에서 시작된 실천



생명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고대인의 DNA, 질병을 넘어서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다

한국전쟁 당시 3천여 명의 외국인 병사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했다. 노벨의학상 수상자 3명이 급파되어 발병원인을 찾으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놀라운 건 이 난제를 한국인 연구자가 명쾌하게 해결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였다. 1976년, 들쥐의 폐장에서 유행성출혈열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Hantaanvirus)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1988년, 세계 최초로 예방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유행성출혈열 환자를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호왕 교수. 그의 별호는 ‘한탄’이다. 미국최고시민 공로훈장(1979), 대한민국학술원상(1980), 과학상(1990), 호암상(1992)에 이어 국

민훈장 목련장(1994)을 받는 등 세계적인 업적을 쌓은 이 명예교수는 언제나 ‘내 유전자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유전자’라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다. 90대에도 여전히 건강한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이나 치료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유전자 검사 등 코로나19 진단기법을 고도화하고 치료법을 개선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진단해서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확진환자 치료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를 창설하고 2003년 사스대책자문위원장, 2009년 국가 신종플루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고(故) 박승철 교수는 평생을 전염병 연구에 매진해온 우리나라 감염 질환의 개척자다. 특히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괴질’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여겨 한글발음인 ‘사스’(SARS)로 대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전염병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다”라며 질병을 넘어서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하는 의사’의 자세를 강조했다.

국내 최고 바이러스·감염 전문가 집단, 위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들

고려대학교 의과학과 송진원 교수는 이호왕 교수의 제자이자 **한타 바이러스*** 연구의 계보를 잇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권위자다. 그는 1990년대 미국 NIH 연수 시절 미국 동부지역

*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로,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과 폐증후군(HPS)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이다. 한타바이러스 종에는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 무주바이러스, 수청바이러스, 임진바이러스, 제주바이러스 등이 있다.

에서 당시 약 80%의 치사율을 보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병원체를 발견해 '뉴욕바이러스'로 명명, 국제 바이러스 분류위에 등재시켰다. 또한, 2009년 비무장지대 임진강 근처에서 잡힌 식충목 동물인 우수리 뱀쥐에서 신종 한타바이러스인 임진바이러스를 세계최초로 발견해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2013년 국제 한타바이러스학회'에서 '이호왕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2019년 한국인으로는 두번째로 국제 한타바이러스 학회장에 취임하며 다양한 병원성 바이러스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한 국내 최고 바이러스·감염전문가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새로운 바이러스와 감염병이 출현하면 언론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김우주 교수다. 메르스 때는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즉각대응팀장, 총리특보 등에 임명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때는 유튜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정보를 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메르스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로서 대국민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보감염증(인포데믹) 방역 차원에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 소통에 나선 것이다.

송대섭 고려대 약학과 교수는 메르스 자체가 생소하던 2012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메르스 연구를 시작했다. 중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젠가 메르스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송 교수는 메르스 연구에 열중했다. 수의학 박사인 그는 그간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 개 인플루엔자 백신, 말 인플루엔자 백신 등 다양한 바이러스의 진단·치료법을 연구해왔는데, 특히 낙타의 침, 콧물 등을 키트에 떨어뜨리면 그 낙타가 메르스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송 교수는 국내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이 진단키트의



희석액을 바꿔 메르스에 걸린 사람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혼란을 잠재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 먼저, 더 스마트하게. 의료계의 새로운 답론 전한 고려대 의료원

코로나19로 모두가 일상을 잃어가고 있을 때 무엇보다 자주 들었던 이름은 바로 고려대의료원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코로나19의 확산 초기부터 주요 의료진들이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조언과 참여에 나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전달을 통해 잘못된 뉴스나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어떤 의료기관보다도 앞서 의료진을 파견하고,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스마트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진료시스템, 스트레스 관리 앱(APP)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위한 응원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교직원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담아서 제목의 영상을 제작, 공개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한 명의 목소리보다 함께하는 힘, 가장 소외된 이를 위한 의료를 실천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찾기 위한 고려대학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고려대 독보적 권تم점프 2020 QS 세계대학평가 69위 세계 50위권 눈앞에

2020 QS세계대학평가 69위, 14계단 수직상승
6년 연속 국내종합사립대 1위,
7년 째 상승세 이어가 아시아 사립대 중에서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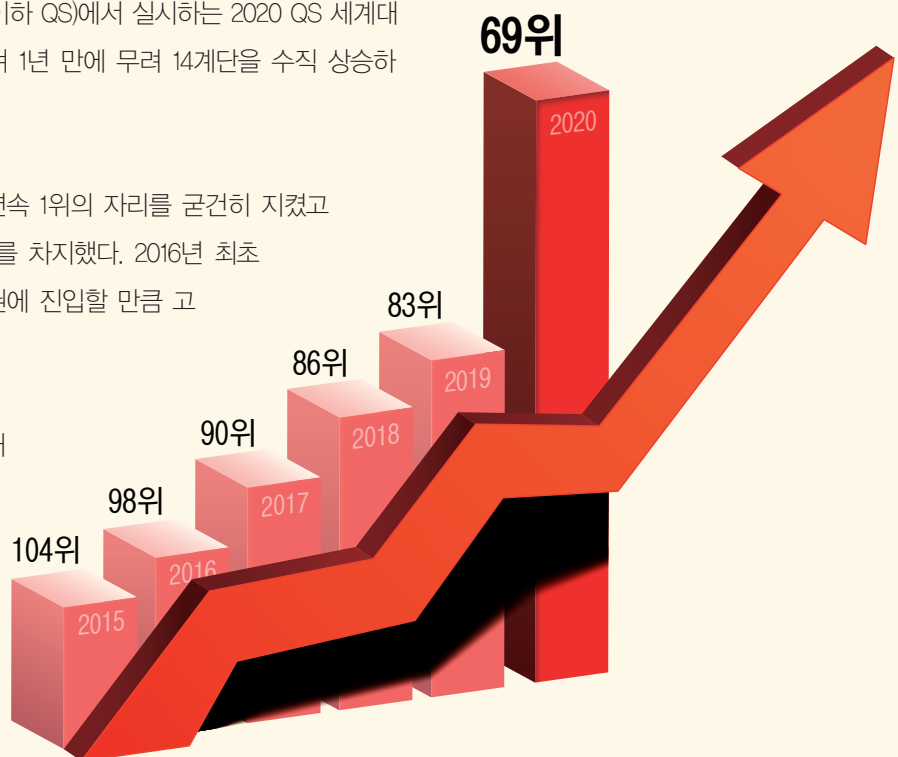
거침없이 질주하는
고려대의 가파른
상승세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가 세계 우수대학들 속에서 독보적으로 도약하며 세계 50위권 대학에 성큼 다가섰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이하 QS)에서 실시하는 2020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고려대가 세계 6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무려 14계단을 수직 상승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려대는 국내 종합사립대 중에서는 6년 연속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아시아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6년 최초로 100위권에 진입한 이후 5년 만에 60위권에 진입할 만큼 고려대의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다.

이번 결과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대학들과 수조 원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미주의 명문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크다.



올해 QS 세계대학 평가는 전 세계 5,546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학계 평가 ▲논문 피인용 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졸업생 평판도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등 총 6개 지표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학계 평가에는 전 세계 학자 9만 4천여 명이, 졸업생 평판도에는 세계 기업 고용주 및 최고경영자 4만 4천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주요 상승 요인 ① 졸업생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는 지난 해 대비 18계단 상승하며 4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는 전통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판도를 유지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QS평가에서도 국내를 넘어 해외 우수 대학들의 평판도와 어깨를 나란히했다.

교과 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의 자유롭고 폭넓은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경험적 지식 획득, 실패하는 연습 등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해내는 기획력과 근성, 타인과의 원활하고 원만한 소통 및 협업 능력을 갖게 된다. 즉, 고용주가 사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체득한 이러한 역량은 사회 진출 후에 자연스럽게 업무역량으로 이어져 원활한 기업 경영과 이윤 창출 효과로 나타난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 과정에서 커리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각자의 경험과 역량이 구직 경쟁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희망하는 산업과 직무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희망하는 업무의 본질과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직무아카데미도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구직자별로 겪는 커리어 개발의 호소문제에 대한 맞춤형 카운슬링으로 1:1 커리어전문상담도 운영 중이다. 그밖에도 실전 면접을 가정한 인사담당자의 면접 지도 및 피드백 등이 담긴 모

의면접클리닉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첨삭 클리닉 등 약 30여 개의 정례/상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위와 같은 강건한 학풍, 훌륭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 사회진출(경력개발)에 있어서의 다양한 코칭과 가이드가 졸업생들의 직업적 삶에서의 성장과 성공에도 두루 작용한 점이 고려대생들의 신뢰도를 높인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상승 요인 ② 학계 평가

고려대는 학계 평가에서 11계단 상승하며 75위에 올랐다. 고려대는 지식 창출과 더불어 연구자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통한 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구 실적의 양적인 면 외에 질적인 면도 높이 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장려를 위한 원문교정지원사업과 학제간연구지원사업을 통한 융합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미래창의지원사업(KU-FRG)을 마련, 신진 교원에 대한 정착 연구비, 대형연구과제, 융합연구, 기초학문 및 희소학문, 국제연구협력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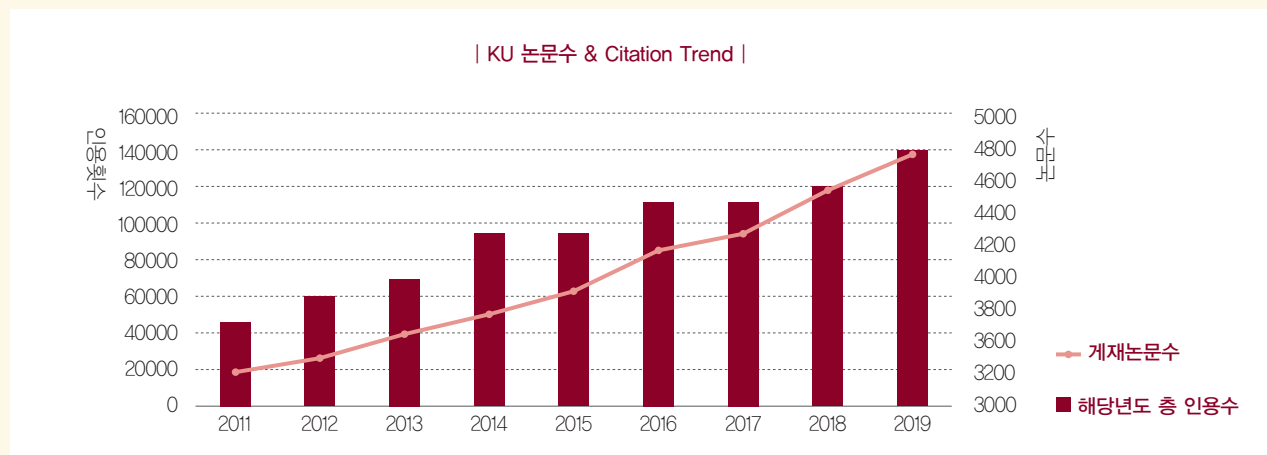
지난 해부터는 인성스타연구자상을 신설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내 연구자에게 고액의 연구비를 지급,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를 전략적,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는 RC(Research Coordinator)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HCR(세계 상위 1% 연구자) 명단에 7명이 선정되면서 국내 사립대학 중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고려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원천 기술

모교소식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결과물의 질적 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 기업의 요구를 공유·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오픈 이노베이션’)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대학원 설

립과 기업과 상생이 가능한 신수종 산업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UN이 정한 인류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에 가치를 두며 고려대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상승 요인 ③ 논문 피인용수

위와 같이 고려대가 학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원들의 우수한 논문으로 인한 피인용 수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려대 연구정보분석센터는 데이터에 근거한 논문분석을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을 위한 KU-SDGs 방향성 탐색과 같은 최신 연구동향분석, 연구분야별 연구성과 벤치마킹, 세부 연구분야별 우수 연구자 자료 등 연구자가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성과 홍보 솔루션(Pure), KU Research, Research Profile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홍보하고 있으며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분야별 연구자 매칭 자료를 제공하여 국제연구협력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고려대 교원의 연구 영향력 향상과 더불어 피인용 지수도 동반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

지고 있으며,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2011년 이후 본교 출판 논문의 피인용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화학(Chemistry), 환경생태학(Environment & Ecology), 공학(Engineering), 약리·독성학(Pharmacology & Toxicology) 및 다학제 분야 등에서 피인용 수가 높았다.

주요 상승 요인 ④ 외국인 학생 비율

이번 평가 요소 중에서 무려 45계단을 가파르게 상승한 분야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다. 고려대는 약 100개국 1,088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정을 맺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캠퍼스의 면모를 갖췄다. 그 외에도 매년 방학마다 전 세계 우수대학의 석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동·하계대학(50여 개국 300여개 대학, 2,500여 명)도 고려대 국제화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구, 교육, 입시 등 다방면에서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가 된 지 오래다. 고려대도 국제화 초기부터 외국인 입시, 한국어센터, 국제하계대학, 방문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외국인 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동계대학까지 운영하며 세계 우수대학들과 비등한 경쟁력을 지니게 됐다.

최근 5년 사이 고려대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국적은 30여 개국에서 60여 개국으로 두 배 이상 다양해졌고 중국학생의 입학 비율은 낮아지면서 외국학생들의 국적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선발 과정도 엄격하다. 해외고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숙련된 외국인 입시 전문가 및 전형관리 위원들에 의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또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KU Global Friends 장학금 등 외국인 장학금 제도를 개편하여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닌 다양하고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모인만큼 교육배경 및 생활환경, 언어장벽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비하여 외국인학생 관리 전담 부서를 두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면밀히 보완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어교환 프로그램, 방학 중 무료 한국어 수업 등 해외 성장배경으로 인한 국내생과의 간극을 줄이고 원활히 수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고려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선발하여 이들이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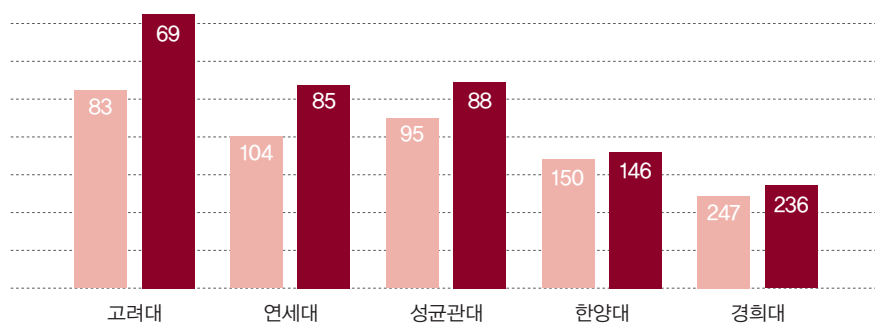
업 후 모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환경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고려대 학생들 역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세계 순위로는 미국 MIT, 스탠퍼드대, 하버드대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영국 케임브리지대(7위), 싱가포르국립대(11위), 칭화대(15위), 도쿄대(24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종합사립대학 순위로는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가 85위, 성균관대가 88위를 차지했다.

한편, 고려대는 QS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평가에서도 국내 종합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공 분야(27개)를 '톱 100위'에 진입시키고, 총 4개 전공 분야가 50위권에 들어가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또한 '톱 100위'에 인문계열 13개 분야, 자연계열 14개 분야 등 분야별 균등한 순위를 보이며 다른 대학들과의 차별성을 보였는데, 이것은 고려대가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한 결과를 의미한다.

박희등 고려대 기획예산처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가면서 본교의 평판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실”이라고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역량과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상위 5개 종합사립대 2019/2020 순위 비교 |



고려대 경영대학, 국제 경영 사례 분석대회 'Top 3' 등극

경영대학 학부생 4명 참가...유럽 대회 출전
국내대학 최초로 수상 영예 안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김재욱)이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교(Erasmus University)의 로테르담 경영대학(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이하 RSM)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경영 사례 분석대회인 'RSM STAR Online Case Competition 2020'에서 'Top 3'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Tony Garrett 교수가 지도교수(Faculty Advisor)로 참여하고, △신예인(경영15) △김대은(경영15) △박재은(경영16) △이주영(경영17) 학생이 대표로 참가한 고려대 경영대학은 스위스의 생갈대학교(University of St. Gallen), 홍콩과학기술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이어 3위(3rd Place)를 차지하면서 유럽 대회에 출전한 국내대학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RSM STAR Case Competition은 매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전통 있는 대회로, 올해는 'A Force for Positive Change'라는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회 본선은 2019년 11월 예선을 통과한 12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9~26일에 걸쳐 진행됐다.

대회는 학부생 4명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시간 안에 특정 기업의 경영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는 형식이다. 기업의 경영 이슈가 주로 사례로 제시되는데,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교수진과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질

의응답이 이어지고,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본선에서는 '필립스(Royal Philips)'와 '코카콜라(Coca-Cola European Partners)'의 경영 사례가 제시됐는데, 주어진 사례를 6시간 동안 분석하는 대회(6-hour case)와 24시간 동안 분석하는 대회(24-hour case)로 나뉘어 진행됐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24-hour case'에서 3위에 올랐다.

대회에 참가한 신예인(경영15) 학생은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고맙고, 지도해주신 Tony 교수님과 지원해주신 경영대학 국제실에 감사드린다"며, "사례를 분석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중간에 좌절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입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욱 경영대학장은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더욱 의미 있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고려대 경영대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고려대 경영대학은 경영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교내 경영사례분석대회인 'KUBS Challenge'를 개최하여 대표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차년도 국제 경영 사례분석대회 출전권을 부여하고, 현지 파견 시 왕복 항공권, 숙박, 대회 등록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대회를 위한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고려대 경영학분야, 상하이 랭킹 세계대학 학술순위에서 국내 대학 1위

고려대가 중국 상하이랭킹지문사가 발표하는 세계대학 학술 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이하 ARWU)에서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 분야 101-150위권에 안착하면서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뒤로는 연세대학교가 151-200위권에 들었다. KAIST, 서울대, 성균관대는

201-300위권이다. 세계 1위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이며 이어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유니버시티 파크),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네덜란드 틸뷔르흐대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매년 전 세계 1,200개 대학 중 500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ARWU는 평가항목이 100% 정량지표로 이뤄져, 연

Shanghai Ranking's Global Ranking of Academic Subjects 2019
(Business Administration)

World Rank	Institution	Total Score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263.3
2	Harvard University	254.4
3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Park	241.8
4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238.5
5	Tilburg University	234.6
101-150	Korea University	—
151-200	Yonsei University	—
201-300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201-300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1-300	Sungkyunkwan University	—

구 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중국대학을 비교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점차 세계 대학 랭킹으로 범위를 늘렸다. ARWU의 분야별 랭킹은 △5년간 논문 수(150) △5년간 톱 저널(Top Journal)에 발간된 논문 수(100) △세계 대학 기준 해당 학과 성과(50) △타 국가와의

협업(10) △수상경력 등 다섯 가지 지표에 따라 정해진다. 고려대는 경영관리(Management)분야에서도 101-150위권에 들면서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대가 151-200위권에 들었고, KAIST, 성균관대, 연세대는 201-300위권에 안착했다.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2020년도 회비 · 분담금 납입 집계 (2020.1.1~2020.6.28 기준)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500만원>

57 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 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5 학번 허광수 자문위원
67 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69 학번 최상영 자문위원
72 학번 구자열 자문위원
72 학번 김 윤 부회장
74 학번 승명호 부회장
75 학번 박유상 부회장
75 학번 이웅열 부회장
75 학번 허경수 부회장
76 학번 이 범 부회장
77 학번 이만득 부회장
80 학번 정몽규 부회장

<300만원>

79 학번 장치평 부회장
81 학번 박정원 부회장
92 학번 김지용 부회장

<100만원>

66 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66 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70 학번 한대근 부회장
72 학번 양승은 부회장
73 학번 정기련 부회장
74 학번 강호갑 부회장
(익명)
78 학번 이영호 부회장
79 학번 이동열 부회장
80 학번 정학현 부회장
80 학번 변대현 부회장
81 학번 박수근 감사
82 학번 최준영 부회장
82 학번 여용동 부회장
(익명)
87 학번 홍종성 부회장

90 학번 최창규 부회장
90 학번 한상일 감사
92 학번 이성욱 부회장
94 학번 김형인 부회장
(익명)

<50만원>

53 학번 이윤재 자문위원
59 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 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 학번 최부웅 상임이사
63 학번 조원영 자문위원
64 학번 강동식 상임이사
66 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67 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75 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 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 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79 학번 정용진 상임이사
79 학번 조청명 상임이사
80 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80 학번 김윤정 상임이사
81 학번 김언수 상임이사
81 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1 학번 송재현 상임이사
81 학번 홍홍석 상임이사
84 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5 학번 김정호 상임이사
87 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93 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74 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79 학번 최수규 상임이사
79 학번 추경호 상임이사

<20만원>

63 학번 전현찬 상임이사
69 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69 학번 이정주 상임이사
71 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2 학번 김문기 상임이사
97 학번 김영일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58 학번 유휘성

이사

55 학번 김기인 박은양
59 학번 강창석 권상진
61 학번 김길남
62 학번 송준일 정준수
63 학번 김형덕 이승철 이영무
64 학번 정제성
65 학번 이창윤 최병일
66 학번 신현옥
67 학번 김용동
69 학번 맹인재 조현룡
71 학번 권관순 김명규 이철영 최윤도
72 학번 강순석 문덕인 이원창 한충열
73 학번 김순배
74 학번 김승길 유대성 윤명상
75 학번 김우진 김창경
76 학번 김덕만 배유현 서윤덕 이범호
77 학번 이용모
78 학번 경석현
79 학번 민경섭
80 학번 정백조
81 학번 김재범 박지수 유한수 이훈복
82 학번 장태수
84 학번 김준호 이소규
85 학번 손순진 임경훈 임 욱 정병욱
86 학번 민왕일
89 학번 김평국

감/사/합/니/다

〈일반교우 3만원〉

48 학번	황현수			
51 학번	전윤자			
52 학번	김영섭			
53 학번	엄기정	정 환		
54 학번	김동진	이종은	이종환	조해연
	태호팔			
55 학번	권중탁	남치현	신문철	
56 학번	김지영	신명철	윤길림	이기홍
	이연상			
57 학번	김문석	김성균	김재곤	손영갑
	이병길			
58 학번	권영직	김영식	남태현	선환규
	이종득	이종철	천정호	
59 학번	강해홍	김상문	노규채	박오학
	송운한	이광조	이윤제	이창용
	한수영	홍윤근		
60 학번	구자욱	김만용	노수범	성윤경
	신준호	윤재순	정성진	조시연
	최덕형	최익호	하정일	한국언
	한기정			
61 학번	김도민	김소현	김윤장	김택원
	안희민	엄무성	오영희	유기현
	윤영범	윤태희	이경순	이근창
	이재영	이창근	이학주	조승자
	채창현	한중구	황인강	
62 학번	구자웅	김광태	김중순	김종진
	백효휘	유병하	이순영	이인영
	한상욱			
63 학번	김소부	김시균	김지창	백선기
	윤익순	이천우	정완영	
64 학번	고병선	김철주	김춘식	민선용
	송병열	신준철	유명식	유재현
	이경희	이용규	조중래	허석도
	현봉길	홍현목		
65 학번	강병호	박태인	이정수	장세공
66 학번	김명진	김웅한	박민규	박용혁
	염수열	오창석	장철기	정동준
67 학번	김택	윤정섭	이계남	이장운
	조용건	최종철		
68 학번	박종성			
69 학번	김영호	온영수	정영목	정택모
70 학번	구본능	박병천		
71 학번	강동석	박용우		
72 학번	고재영	김영만	김종현	류병기
	박흥국	장석산	전종환	정우성
	최창현	황순기		

73 학번	손대정			
74 학번	박영식	박용운		
75 학번	김호섭	김희환		
76 학번	신동열	이봉용		
77 학번	김대철	이찬근		
78 학번	김일웅	김태완	박수영	정세중
79 학번	김명국	김현중	류병완	정운창
	최계수			
80 학번	김병조	김태현	최유성	
81 학번	김용운	김한근	남익우	박순범
	오주환	이심훈		
82 학번	김지환	박종원	심재홍	오창희
	이성우			
83 학번	곽병현	김민호		
84 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경중	김병남
	김억석	김영근	김진성	김홍석
	남택진	박광구	박기호	박병성
	박정민	박현철	박호준	윤영원
	이경섭	이용석	이정근	이종우
	이창구	임진균	정진국	조흥준
	최병권	허용모	홍제연	
85 학번	김창수	박승하	신강영	신호섭
86 학번	강신재	김석영	김좌영	류재열
	박진영	서동욱	이중현	
88 학번	하종문			
89 학번	김영필	김종민	정운근	
90 학번	강승모	김형기	염창열	이은기
91 학번	조성일			
92 학번	김대형	김재형	정선홍	
93 학번	윤성재			
94 학번	박형현	방상호	서경덕	허도영
95 학번	강덕영	신재욱	이규열	이희윤
96 학번	김웅겸	손희중	이명준	이준희
98 학번	이재등			
00 학번	박진			
03 학번	오병원	윤하국	추창화	
04 학번	김형태	송진		
05 학번	박종환	이현호		
06 학번	이준영	홍준		
07 학번	손상엽	이정기		
08 학번	신재호			
09 학번	한상영			
10 학번	김도형	김명곤		
11 학번	한은경			
12 학번	황지민			

〈학번별 분담금〉

62 학번	500,000
66 학번	500,000
67 학번	500,000
70 학번	1,000,000
71 학번	1,000,000
72 학번	1,000,000
73 학번	1,000,000
74 학번	1,000,000
무역76 학번	250,000
77 학번	1,000,000
79 학번	1,000,000
82 학번	1,000,000
84 학번	1,000,000
86 학번	1,000,000

학번확인불가(동명인)

김영규	100,000
김신희	30,000
한홍섭	30,000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교우 호랑 씨

최홍재 <상학60>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1

앗! 그런데 이 호랑이는 ...



3

사람은 이름을
남겨...



2

훌륭한
이름을
남기는 군

기업 brand



4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의 경영대와 경영대 교우회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연회비 목표 16,500,000원
달성 **47%** 실적 7,740,000원

2020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목표 20,00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59%** 실적 11,750,000원

목표 200,00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60%** 실적 119,000,000원

2020년 1월 1일 ~ 6월 28일 기준

총 목표 236,500,000원
달성 **59%**
실적 138,490,000원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KUBS Vision and Strategies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2030년까지 Global Top30,

Asia No.1 수준의 존경받는 Business School 달성

